

2014 원자력계 신년인사회 개최

정부 · 전력그룹사 등 주요 인사 2백2십여명 참석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조석 한국원자력산업회의 회장

2014년 원자력계 신년인사회가 2014년 1월 10일(금) 오전 7시 30분 서울 서초동 소재 서울팔래스호텔에서 조찬회 형식으로 개최되었다. 한국원자력산업회의와 한국원자력학회가 공동 개최한 이번 신년인사회는 정부 및 산·학·연의 주요 관계자, 원자력계 원로 등 220여명이 참석하여 서로 간 새해 인사를 나누면서 성황을 이루었다.

조석 한국원자력산업회의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내 원자력발전은 70년대 오일쇼크를 극복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었고, 수출 중심의 산업구조로 고도성장을 가능케 한 견인차였다”며 “그러나 최근 우리 원전 산업계는 큰 어려움을 겪었다. 어려움의 원인에 대해서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부족함을 탓하지 말고 자신의 분야에서 부족함을 돌아보는 철저한 ‘자기반성’의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비록 우리를 바라보는 언론과 국민의 시선은 싸늘하지만, 결코 의기소침할 필요는 없다. 올해는 모든 악재를 훌훌 털어버리고,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명예를 되찾는 자랑스러운 해가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한다”고 밝혔다.

특히 조 회장은 △원전산업 안전성 강화 △국민 신뢰 회복 △원자력계 미래 준비 등 3가지 중점 사항을 강조하며 “철저한 자기반성을 통해 이 얼음장 같은 분위기를 뚫고 ‘용왕매진(勇往邁進)’의 기세로 힘차고 용감하게 나가자”며 “원전산업계가 새로워지는데 너와 내가 따로 없고,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돼야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조 사장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원자력발전의 역할을 결코 포기할 수는 없으며 원자력은 국가 에너지 안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에너지원”이라며 “우리의 저력을 발휘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기를 기대한다”고 원자력계를 향해 거듭 당부했다.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2013년은 원자력계가 큰 어려움을 겪은 한 해였지만 한편으론 여러 가지 의미있는 성과가 도출된 한해이기도 했다”고 평가했다. 최 장관은 “2011년부터 미국과 함께 파이로 사업에 대한 기술성·경제성·핵비확산성을 검증하기 위해 공동연구를 추진해 온 가운데, 사용후핵연료 처리를 위한 기반이 마련돼 가고 있다”며 “또 수출 분야에서는 최초의 해외 원자로 건설사업인 요르단 연구용 원자로의 건설허가를 획득했고, UAE 원전 건설 사업도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다”고 치하했다. 아울러 “정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원자력 창조경제 실천계획’을 통해 원자력 비발전 분야가 창조경제의 새로운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주요 인사. (앞줄 왼쪽부터) 이종진 한국원자력산업회의 상근부회장, 설영주 한전원자력연료(주) 감사, 박정근 한국전력공사 해외부문 부사장, 최외근 한전KPS(주) 사장, 한기선 두산중공업(주) 사장, 김무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장, 김종경 한국원자력학회 회장,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조석 한국원자력산업회의 회장, 정근모 한국전력공사 고문, 박근철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총장, 이종인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 박구원 한국전력기술(주) 사장,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 (둘째 줄 왼쪽부터) 김희방 두산중공업(주) 원자력 BG 부사장, 한정택 한국수력원자력(주) 관리본부장, 김대희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전무이사, 김범년 한국수력원자력(주) 엔지니어링본부장, 장문희 한국원자력연구원 고속로연구부 선임연구위원, 김동수 한국수력원자력(주) 건설본부장, 이명철 한국동위원소협회 회장, 천병태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이사장, 문해주 미래창조과학부 우주원자력정책관, 최영명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원장, 박성원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장 직무대행 전략사업부원장, 박철주 한전원자력연료(주) 사장 직무대행 생산본부장, 조병옥 한국수력원자력(주) 품질안전본부장, 안홍준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 회장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최 장관은 “지난 50여 년간 우리나라 원자력 분야가 원자력의 이용 확대에 중점을 두고 진행돼 왔다면 이제부터는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같은 최악의 재해에도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원자력안전 기술을 중점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머지않아 새롭게 부상할 세계 원전체제 시장 진출에 대비한 기반기술 개발도 본격적으로 준비함은 물론 사용후핵연료 처리 및 파이로 프로세싱 등 새로운 원전기술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원자력 비발전 분야 등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여러 현안과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있는 새해, 원자력 가족 모두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 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년인사회는 신년사에 이어 신년축하떡 커팅, 기념사진 촬영, 조찬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조찬 후에는 김종경 한국원자력학회 회장의 폐회 인사로 일정을 마무리하였다.

[참석 기관]

미래창조과학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비롯하여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전력기술(주), 한전원자력연료(주), 한전KPS(주),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원자력문화재단, 대한전기협회, 한국동위원소협회,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한국비과과검사학회, 한국원자력여성, 한국원자력안전아카데미,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 경희대학교, 서울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전력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가나물상(주), 대림산업(주), (주)대우건설, 동아건설산업(주), 두산중공업(주), 삼성물산(주), (주)삼의공영, 새한산업(주), 석원산업(주), (주)성일에스아이엠, SK 건설(주), Webasto R&C, 웨스팅하우스 코리아, GS 건설(주), (주)코센, (주)포스코건설, (주)한빛파워, 현대건설(주), 호마기술(주), (주)효성

프랑스원전수출산업협회 한국원산 방문



한국원산과 프랑스원전수출산업협회(AIFEN)는 한국원자력연차대회와 프랑스 국제원자력산업전에 대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프랑스원전수출산업협회(AIFEN)의 Gerard Kottman 회장 일행이 1월 13일 한국원자력산업 회의를 방문하였다. 양 기관은 기관 소개 후 올 4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29회 한국원자력연차대회와 부산국제원자력산업전, 그리고 첫 개최를 앞두고 있는 프랑스 국제원자력산업전에 대한 협력 방안과 향후 교류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프랑스원전수출산업협회는 EDF, Areva, CEA, Andra 등이 주축으로 프랑스 원전기술 수출 진흥을 목표로 프랑스원자력산업전략위원회에 의해 2013년 7월에 창설된 민간 단체이다.

2014 부산국제원자력산업전 준비를 위한 기획홍보회의 개최



부산국제원자력산업전(4.16~18)준비를 위한 제2차 기획홍보회의

한국원자력산업회회는 1월 16일 한국원산 나눔누리실에서 국내 원자력 주요 8개 기관 관계자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 BEXCO에서 개최 예정인 부산국제원자력산업전(4.16~18) 준비를 위한 제2차 기획홍보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제2차 기획홍보회의에서는 부산국제원자력산업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한국수력원자력(주), 한전KPS(주), 한국전력기술(주), 한전원자력연료(주),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원자력연구원, 두산중공업(주) 등 국내 주요 원자력기관에서의 전시부스 참여 계획 등 추진 일정을 공유하고, 기관별 협력사의 전시참여 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추진 현황 등에 대해 협의하였다.

또한 동 부산원자력산업전 기간 중 국내 원자력 관련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한 통합설명회 개최를 지난 1차 기획회의에서 논의하였는데, 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주요 기관별 동반 성장 지원 프로그램과 입찰 관련 계획 등 협력사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국수력원자력(주)를 비롯한 주요 기관에서 계획하고 있는 구체적인 설명회 개최 계획과 일정 등에 대한 협의를 가졌다.

한국원자력산업회회는 기관별 협력사 전시참여 지원프로그램과 기관별 설명회 계획을 2월초 확정하여 홈페이지 및 관련 협력사에게 공지함으로써 국내 원자력관련 협력사 관계자의 부산국제원자력산업전 참여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